

아무도 몰랐던 **물레발명** 이야기 「질레트」의 안전면도기, **국립 김민재**

이 땅의 성인 남자가면 매일
이런일이야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바로...



정답은 바로
'면도'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데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면도를
하고 있지만 1890년 경에만 해도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엄청난 면도기를 인해 턱은 온통 상처
투성이인데다가 악수는 눈고...
한마디로 아찔하다 면도와의 전쟁이었다.



가. 그렇다면 면도기의 혁명을
가져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
해 보실텐데... 그 남자의 이름은
너무도 유명한 '질레트'라는 평범한
세상의 맨이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1년간 끝없는
새로운 면도기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질레트는
이발소에 들리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질레트는 중요한 새발명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곧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공짜로 면도기 제작에 들어갔다.



실험에 들어갔다



결국 말끔하게 면도가 되었고 그는
독려출원료 공장을 세우고 대량생산을
시작했다



한달도 못돼 1년내내 풀가동비도 모자랄
엄청난 물량의 주문이 쇄도했고
2년후엔 세계 20여개국에 수출되고
10년후에는 50여개국의 현지공장이
쇄도했다. 원래는 면도기의 대명사
처럼 '질레트' 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지긴
했다.

